임실N치즈축제 준비 한창

임실군, 10주년 맞아 황금 10돈 이벤트 등 신규 프로그램 완성도 높여나가기로

축제 제전위원회 임시총회 · 기본계획 보고회 열고 추진 상황 · 계획 집중 점검

지난 8일 임실치즈테마크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 임시총회 및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군이 지난 8일 임실치즈테마크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 임시총회 및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 도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제전위원, 대행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에 따른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의 장이 됐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보다 다채로운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10주년 기념 △저지종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홍보 △황금 10돈 이벤트 △임실가왕 선발대회 등 남은 기간 계획 중인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 경관이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수놓아, 유럽형 장미공원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감동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작은 척박한 시골 마을 임실 땅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오신 지정환 신부님께서 산양 두 마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낸 대한민국 최초 치즈를 테마로 한다.

임실치즈의 가치와 지정환 신부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임실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군은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쏟아부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 ·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어느덧 임실N치즈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임실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제주, 드론산업 성장동력 발굴 '맞손'

시, JIBS · JDFF와 3자간 협약

남원시는 지난 10일, 제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시, JIBS, JDFF와의 3자간 드론 관련 문화 콘텐츠 및 남원과 제주 지역 드론 산업 성장동력 발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JIBS(제주방송) 신언식 회장, JDFF 박상원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남원시와 JIBS, JDFF는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 △드론 활용 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드론 관련 시사회 및 행사 개최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한 제안 등 협력을 다짐했으며, 남원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성공적인 개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주방송,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과 협력, 남원시와 JDFF 조직위원회 간에 상호 국제 드론행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스마트 건강돌봄 읍면 지역까지 100가구 확대

남원시는 12일부터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읍면 지역까지의 100가구를 확대해 총 200가구에 지원한다.

본 서비스는 치매환자 가정에 ICT 장비 10종을 설치하여 24시간 내내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분석하여 돌발상황을 예측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또는 112에 자동 신고됨은 물론 보건소와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대상자와 보건소간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을 통하여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고 개인별 건강관리와 비대면 인지훈련까지 하여 치매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대상자의 평소 외출 시간을 고려하여 장기간 부재로 인한 실종 예측 시 남원시 CCTV관제센터에 연동되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치매환자 실종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4시간 스마트돌봄 서비스는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동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및 부부 치매환자 100가구에 스마트기기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번에는 읍면지역에 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휴가철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소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화재 · 구조 · 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음성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소개했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전화를 통한 음성신고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문자나 스마트폰 앱(APP), 웹(Web)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119 신고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앱을 활용하여 신고했을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에 산악이나 해상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영상통화를 활용해 화재 · 심정지 등 응급상황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대처에 관한 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폭염 피해 예방 경로당 3시간 연장운영

남원시는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3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통상적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과 주말 ·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3시간 연장 운영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시원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찜통 더위에 더욱 힘드실 어르신들이 시원한 경로당에서 무더운 날씨를 안전히 잘 이겨내시도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 하반기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남원농기센터, 내달 5~26일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

16일부터 남원시 통합예약신청시스템 통한 신청 가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는 우리 쌀의 활용도를 높이고 단체급식에서의 쌀 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전문 리더 육성을 위한 '하반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오는 9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A반-오후 1시 30분~3시 30분/B반-오후 4시~6시)로 160명 대상 운영될 예정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대상은 영양(교)사, 조리사, 급식관계자, 쌀가공 · 외식사업체 운영자, 조리 · 영양 · 식품가공 등의 식품 종사자 및 관련 자격증을 갖춘 남원시민으로 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남원시민은 12~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청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수강 신청 및 교육 담당자 메일을 통하여 증빙서류 필수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4주간 찹쌀 모나카 견과칩, 미니 쌀 양갱, 쌀 피넛 쿠키 등의 단체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쌀을 활용한 가공 간식 8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센터 농촌진흥과 농식품산업 담당자(063-620-8027)에 문의하면 된다.

센터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진행되었던 전문교육에서 교육생 97%(설문참여자 36명 대상. 관내 영양(교)사 17명, 종사자 19명)가 재참여 의사를 밝힐 만큼 교육 만족도가 높아, 이번 하반기에도 실제 단체급식에서 쌀이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되고 교육생들의 쌀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전문리더로서 관내 우리 쌀 활용과 소비의 증대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하반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 참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는 푸드아트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공예교육심리상담사, SNS 창업 마케팅 교육과정 등 총 3개의 과정을 개설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실버인지 놀이지도사와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 신청은 순창에 주소를 두고 교육 후 취업 또는 창업 의사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관련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13, 1337)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무더위 시원하게 날렸다

순창발효테마파크 한여름 축제 '성황' … 관광객 호응

지난 9일과 10일 순창군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 한여름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시원하게 날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축제의 서막을 알린 '2024 꼼순락 : 꼬마들의 순창 오락실'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발효쿠킹클래스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트러플 치즈피자를 만들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아울러, 야외에서는 '물총놀이 오락실', '어린이 문화공연', '선셋 돗자리 영화관', '꼼꿈락 예술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날 아이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끽하며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찼다.

둘째 날 펼쳐진 '2024 순창썸머나잇'은 젊은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먼저 '뮤직 앤 퍼포먼스'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한 음향과 조명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은 유명 힙합 래퍼 행주, 팔로알토, 호미들과 인기 DJ 주디, 엘리아, 키시, 페너 등의 화려한 라인업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상시 프로그램 '워터밥', '돗자리 야시장' 등은 풍부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축제의 흥겨움을 더하고, '순창라운지'에서 선보인 지역 전통주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창=이양원 기자